

종합

교부세·세외수입 급감 시·도 예산짜기 버겁다

내년 광주 3조·전남 5조 불구 '풍요 속 빈곤'

광주시 전남도의 내년 예산이 각각 2조8천억, 5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풍요 속 빈곤'에 시달릴 전망이다.

국고 보조금 사업이 늘면서 이에 따른 시·도비 지출(국비매칭 사업비)이 크게 증가한 데다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감소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의 내년 예산은 올해 2조7천135억 보다 5% 증가한 2조8천550억, 전남도는 올해 4조6천억원에 비해 10% 이상 늘어난 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시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23.2% 증가한 6천534억원, 전남도는 올해 2조6천500억 원에 비해 15% 이상 증가한 3조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예산과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등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 예산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의 증가 폭이 커진 때문이다.

이처럼 국비 보조금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광주시의 경우 국비 매칭 사업비 지출액이 지난해 2천억에서 500억원 가량, 전남도는 무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내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부세도 광주·전남 통틀어 650억 원 가량 줄 것으로 보이고,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한 조기집행과 시중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자체 이자수입까지 줄어드는 등 세외수입이 크게 줄면서 가용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도는 국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에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로 1천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 등이 점차 회복되고 있어 시세 증가도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산 규모는 늘고 있지만 매칭 사업비 증가와 도세 감소 등으로 실·국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고민을 겪고 있다"면서 "따라서 내년도 지방소비세 확보와 수도권에서 거둔 소비세 재원으로 만들어지는 산생발전기 확보에 주력하고, 올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내년 도세도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민만평

- 김종우



보다 못해 이럴지도 모르겠다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업·모임·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 직통:(062)227-9600
• FAX:(062)227-950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시민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고정610
사건 명: 공인증개시자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09년 11월 3일

판결공시

상속한정승인공고

당 하처장(421004-1550711)상속에 대한 권리에 따른 재권자에 대한 공고, 협정승인(재권자에 대한 공고, 회고)에 관한 민법 제10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제3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시민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년 11월 15일
공 고 인: 양현숙, 하경우, 하현성
한정승인수리일: 2009. 10. 27.
공고기간: 2009. 11. 04 ~ 2010. 01.03(2개월)
연락처: 전남 담양군 남면 구산리 342-1
장연재(010-9630-0047)

광명군 공고 제2009-342호

「배수 징입선착장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사전환경설명회(초안)」 열람 공고
1. 「배수 징입선착장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사전환경설명회(초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影响 평가 및 관리 계획」에 의거 사전환경설명회(초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취득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사전환경설명회(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일정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4일

영광군수

- 사업 명: 배수 징입선착장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 사업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소형·중형 시설, 생활환경개선시설, 편의·복지·문화시설 등 소통하고 어촌을 대상으로 한 본관이 연계되는 도로 확장, 위치·선행을 위한 타당성검토와 적정규모 제시 및 활용화하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위 치: 전라남도 영광군 배수읍 대신리 일원
- 면적: 32,000㎡(광유수면 28,380㎡)
- 토지이용계획: 재생성능(환경도서 쓰임)
- 공정기간: 2009년 11월 4일 ~ 2010년 11월 25일(20일간)
- 공동점수: 영광군 해양수산과, 배수읍사무소
- 사전환경설명회(초안)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일자 및 장소 일 시: 2009. 11. 16(월요일) 14 : 00
장 소: 배수읍사무소 회의실
- 관련문서: 계제설명회(관계도서 쓰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수도(061-850-5413)로 문의 바랍니다.

KIA 9일 무등경기장서 'V10' 축하행사

소녀시대 등 인기 가수 초청 공연

팬사이회·신차 경품 행운권 추첨

KIA 타이거즈가 오는 9일 무등경기장에서 선수단과 인기 그룹 소녀시대 등이 참가하는 2009 한국시리즈 우승기념 축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시리즈 우승을 위해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오후 5시30분부터 1, 2, 3부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KIA 사진 전시회와 응원 메시지 작성, 선수들의 팬사이회 등의 식전 행사도 펼쳐진다.

공식행사 1부는 개회식과 내, 외빈 소개, 선수 및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 입장과 환영사 등으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선수단 소개, 한편, 기아차는 이달 영업점을 방문한 모든 고객에게 응모권을 배부하고 회사 홈페이지(www.kia.co.kr)를 통해 응모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준대형 신차 K7(1대)과 경차 모닝(1대)을 증정하기로 했다.

국시리즈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선수 장기자랑, 축하 공연, 행운권 추첨 등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날 축하공연에는 여성 9인조 그룹 소녀시대와 인기그룹 노브레인, 신인여성그룹 러블리가 함께해 타이거즈 'V10'을 축하하는 공연을 펼칠 전망이다. 어린이재단과 후원 결연식을 맺은 신인 안지홍은 그동안 적립한 후원금을 전달한다.

3부 행사에는 폐막을 알리는 성대한 불꽃놀이가 준비됐다.

이날 행사는 그리운드 2천명과 관중석 3천명 등 총 5천명이 입장 가능하다.

입장 티켓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야구장 3부족 매표소에서 선착순으로 교부하며, 그리운드 및 관중석 입장은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한다.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구단에서 마련한 기념품 등이 증정된다.

다.

한편, 기아차는 이달 영업점을 방문한 모든 고객에게 응모권을 배부하고 회사 홈페이지(www.kia.co.kr)를 통해 응모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준대형 신차 K7(1대)과 경차 모닝(1대)을 증정하기로 했다.

즉석 게임에 참가해 당첨된 고객들에게는 하와이 여행 5박6일 2인 여행권(10명)과 기아 타이거즈 야구모자 및 사인볼 세트(7천명) 등을 준다. 오는 10일 이전에 차량을 계약해 이달 20일 이전에 출고한 고객들에게 차값 10만원을 추가 할인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외국인 국내 입국

지문 등록 의무화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에는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입국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에 대해 입국 및 등록시 본인확인 절차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반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해 근무처 변경·주거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유 신고제로 완화했다.

/연합뉴스



서구청 현안보고

박광태 광주시장이 3일 광주 서구청을 방문해 전주언 청장을 보고 받고 있다.

(광주제공)

박 시장 "돌구장 부지 연말께 결정"

서구 등 2곳 검토

박광태 광주시장은 3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축돌구장 부지와 관련, "연말까지 포스코가 제출한 제안서를 보고 나서 건립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청에서 열린 구정업무보고회와 기자간담회에서 "건립 예정지로 현재 2곳이 검토 중이며 그 한 곳에 서구가 포함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서구의 장기 발전전략을 짜는 데 참조하라는 뜻에서 서구가 건립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며 "부동산 업자들이 이 달려들기 때문에 지금은 부지를 밖힐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야구장 뿐 아니라 신도시 건립이 함께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지면에 지금은 부지를 확정해도 건립부지를 짚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어 "현재 일부 반대가 있지만, 이를 무릅쓰고 돌구장을 건립하게 되면 광주는 물론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명물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일반구장)은 기재 1천억원을 조성해야 하는 등 시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기재 조성도 어렵다"며 "광주시민 90% 이상은 돌구장 건립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일부 반대가 있지만, 이를 무릅쓰고 돌구장을 건립하게 되면 광주는 물론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명물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늘 폐막

20만 관객 찾아 차분한 감상

일부 전시 네덜란드·日 수출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 18일~11월 4일)가 48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4일 폐막된다.

또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이장우 가죽이 문화 명소로 재탄생하고, 사직동 팔각정이 리모델링되는 한우 등 광주 도심 곳곳이 화사한 디자인으로 탈바꿈하는 성과도 올렸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이날 오후 6시30분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한우 등 광주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자인 실마리를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 일부 전시를 네덜란드와 일본 등지에 수출하고, 비즈니스 큐레이터를 운영해 작품과 산업체를 직접 연결시키는 등 예술성과 산업화를 동시에 총족시킨 명실상부한 국제 행사로도 약했다.

신종플루 확산 속에 예년 보다 관람객은 다소 줄었지만 전시 기간 동안 20만여명이 전시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다.

한편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독일의 자동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 등 48개국에서 519명의 작가들이 참가해 현대 디자인의 다양화를 선보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금 매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46-2 백악관 예식장

■ 대지면적 : 1770㎡(535평)

■ 지 역 : 준 주거지역

■ 건축면적

구 분	면적(㎡)	용 도
지 하 1층	1147.07	주차장
1층	584.2	휴게음식점 외
2층	584.2	예식장
3층	493.65	예식장
4층	493.65	식당
5층	493.65	식당
계	3796(1148평)	

■ 주차용도

- 예식장, 병원, 교회, 학원, 대형마트
사우나, 체육시설 등

■ 매매가 : 23억(대출금 13억 포함)

상담 전화 011-625-8153

다산공인증개사

한 010-7154-6996 ☎ 972-8004